



보도자료

제공일 : 2012. 1. 31.
제공자 : 농림수산물식품부 검역정책과
과 장 : 전 중 민
사무관 : 장 귀 표
전 화 : 500-2123
쪽 수 : 2P
별첨자료 : 없음

이 자료는 2012년 2월 1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“불량 수산물 유통 사전에 차단 한다”

- 농식품부, 올해 수산물 59개 품종 9,500건 안전성조사 -

〈 주 요 내 용 〉

- ◇ 불량 수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 국내산 수산물 59개 품종을 대상으로 총 9,500건에 대해 「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」 수립·시행
 - 검역검사본부 6,350건, 수산과학원 1,600건, 부산시 400건, 전남도 700건, 경남도 450건
 - 연근해 및 원양산 16개 어종에 대해서도 주 1회 방사성 물질 검사

- 농림수산물식품부는 「2012년 수산물 안전성 조사계획」을 수립하고 생산·저장·거래의 전(前)단계 및 수출·인증수산물 59개 품종 9,500여건에 대한 ‘수산물 안전성조사’를 시행하여 불량 수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.
- 계획에 따르면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6,350건, 국립수산물과학원 1,600건, 부산시 400건, 전라남도 700건, 경상남도 450건씩 분담해 조사할 계획이다. 이는 지난해 9,000건에 비해 5.6% 증가한 것이다.

- 분야별로는 ▲소비가 많은 품종 및 수출지원 대상 품종 등을 대상으로 한 ‘안전성조사’에 7,295건 ▲식중독균 및 신종유해물질 등 ‘모니터링조사’에 668건 ▲학교급식 및 긴급상황 발생시에 대비한 ‘특별조사’에 982건을 조사한다.

- 농식품부는 특히 지난해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, 계절별 집중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, 양식수산물 유해물질 등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.
-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내산 수산물 16개 어종에 대해 주 1회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.
-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개 품종을 선정해 장염비브리오균 검사를 실시하고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 들어가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한다.
- 최근 양식수산물에서 유해물질 검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양식장(1만4,388개소)을 대상으로 올해 1,458개소를 시작으로 앞으로 5년간 연차적으로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.
- 수산물은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이며, 건강식품 선호경향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. 농식품부는 수산물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, 국내외 유해물질 발생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